

회수물류(Remove Logistics)의 중요성 대두

최근 높아져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회수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및 산업계의 대응방안이 구미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본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1991년 독일에서는 상품포장을 리사이클(Recycle) 하도록 법제화되었고, 이와 유사한 법들이 구주 및 미국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리사이클(Recycle), 리유저블(Reuseble), 리턴어블(Returnable)에 관한 상품 및 물류포장과 시스템에 관한 준비와 실제 적용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그들이 생산한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끝나면 생산한 물품을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제화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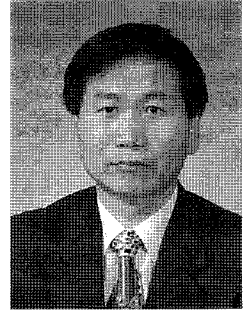
또한 경제적 및 환경적요구에 의하여 더 이상 포장 쓰레기나 사용이 끝난 제품쓰레기가 매립처리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매립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요인들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리턴어블 포장 및 수배송시스템에 투자할 이 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회수물류시스템의 디자인과 연구개발이 앞으로 기업경영에서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합쳐 이미 세계 제12위의 무역국가가 되었으며, 선진국과의 교역조건에서 녹색물류(Green Logistics)나 회수물류(Remove Logistics)가 중요한 선결요건으로 무역환경이 바뀌어 나갈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쓰레기 처리는 BC 5세기의 고대 회랍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땅에 묻는 방법이나 소각하는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고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

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매년 미국인들은 750억 개의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뉴욕시에서만 도 가까운 장래에 1년쓰레기 매립양이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부피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987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매일 평균 4.34 파운드의 쓰레기를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1년간 발생 쓰레기의 양은 2억 2800만톤으로서 654평방마일을 10피트 깊이로 매립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다.

땅이 작고 인구가 조밀한 유럽에서는 미국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규제로서 포장물을 생산자가 회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이는 앞으로 계속 강화되어갈 상황이다. 이의 대가를 소개하면 생산 및 유통사업자는 파렛트나 카톤 등의 물류포장을 리유즈 또는 리사이클로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하고, 소매업자들도 치약튜브나 상품 외부포장등의 2차포장을 리유즈 및 리사이클하여야만 하며, 음료나 페인트 등은 데포짓/리펀드시스템을 사용하여야만 하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뿐인 지구, 후세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현세대의 사람들에게 부과된 환경보호라는 21세기의 중대한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에 있어서 물자의 흐름을 하나의 싸이클로 귀결시키기 위한 회수물류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의 중요한 이슈는 물자와 에너지의 재활용, 재사용과 이를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제반기술과 기법을 널리 도입 운영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한국파렛트협회
부회장 서 병 루